

(토론3)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인 배

1. 토론회 개최의 의의

토정 이지함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 오늘의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구한 역사문화자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산에서 과거 아산현감을 지내셨고, 일반인들에게는 토정비결로 널리 알려진 토정선생의 아산지역 행적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 가치를 발굴하여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정 이지함은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역사적 인물로서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역사문화적 차원의 원형발굴과 현대적 활용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의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토정 이지함의 역사유적과 원형콘텐츠 발굴

제2주제발표에서는 이지함과 관련된 유적으로 아산시에는 인산서원(아산시 염치면 서원리 서원골), 이지함 영모비(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여민루(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아산향교(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어금니바위(토정의 죽음과 관련한 전설) 등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밖에도 더 관련된 유적들이 없는지 체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역사유적을 찾는 연구와 앞에서 제시된 유적에 토정 이지함과 관련된 기록과 유적들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원형 콘텐츠를 발굴하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역사적 기록과 원형콘텐츠에 의한 역사유적의 재현 추진

제2주제발표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토정 이지함의 시대에 ‘걸인청’이 지어졌다면, 한옥이 기와집인지, 초가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집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걸인청’뿐만 아니라 토정 이지함과 관련된 다양한 원형콘텐츠를 일정한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유적을 재현하는 사업의 추진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토정 이지함 관련 역사유적의 재현은 역사적 기록과 원형콘텐츠에 근거하여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면서도 현대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

4. 토정 관련 문화콘텐츠 및 관광상품의 개발 필요

앞에서 제안한 토정 이지함 관련 역사유적의 재현은 물리적 공간의 조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과 원형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토정 관련 문화콘텐츠 및 관광상품의 개발로 아산현감시절의 ‘걸인청’과 ‘토정비결’ 등을 포함하는 토정 이지함의 일생을 담아 현대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걸인청’은 복지관광차원으로, ‘토정비결’은 사람의 일생과 앞날을 예견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상품화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역사유적의 재현과 상품프로그램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콘텐츠 상품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을 ‘걸인청’과 ‘토정비결’을 테마로 하여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 차원에서 찾고 만들어 이를 확산시켜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는 그 동안 아산시가 보유하고 있던 온천과 현충사 등 역사적 문화관광 콘텐츠에 또 다른 인물에 역사자원의 가치를 더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더욱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